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연구

박우미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전공

Comparative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and Perception about Their Bodies by Korean and American Female Students

Park, Woo Mee

Division of Design, Kwangju University

(2000. 2. 10 접수)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satisfaction with and perception about their bodies by Korean and American women. The respondents included 242 Korean and 145 American female student volunteers, aged 18 to 27, who were enrolled at Kwangju and Catholic University and Cornell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ree sections; a body cathexis, perceived body shape—self, perceived body shape—ideal.

Twenty items of 30 item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women. Korean student female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20 items than American women. Even though Korean women were smaller in body build than the American women, the Korean women were more negative about their large type, shoulder, hands, arms, hips, neck, face, and skin color than the American women. There were m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erceived body shape—self and perceived body shape—ideal responses for Korean and American respondents. The exceptions were that a fuller bosom, and longer legs than perceived body shape were desired in both cultures, longer arms were desired by Korean women and darker skin color was desired by American women

Key words: body cathexis, perceived body type, perceived ideal body type:

신체만족도, 인지하는 신체형, 인지하는 이상체형

I. 서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의류산업이 크게 변화한

부분은 맞춤형에서 기성복산업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기성복산업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소비자 중심의 의류산업으로 변화되었으며 기성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스 시대 이래로 완전한 신체 비례를 이루는 체형을 이상형이라 하였고 신체의 이상형은 비

* 이 논문은 1998년도 연암재단 해외 연구 교수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추어지는 사회상에 따라 변화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형으로 추구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를 위해 다이어트나 에어로빅, 헬스 등 스포츠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체 이미지는 스스로의 주관적, 감정적인 견해로 나타나고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의해 신체 각 부위에 대해 갖는 만족·불만족의 느낌으로서(Horn, 1968)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 그리고 외모에 대한 만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표현되어 진다. 이러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신체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 차이가 많을수록 커지고(Davis, 1985) 추구하는 이상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의복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는 외모나 의복만족도 그리고 의복에 대한 구매행동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은 외모를 좋게 하고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구매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어 신체에 대한 인지와 만족도는 기성복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류업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이상형을 평균체형으로 간주하며 이를 기준으로 의복을 디자인·제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상형에서 많이 벗어나는 소비자들은 의복이 자기의 신체에 맞지 않을 때 의복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의복의 착용을 통한 심리적 만족과 기성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형이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변화하는 것과 같이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이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되어 시대적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비교연구도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자의 주요방향은 기성복산업의 전자상 거래

등의 활성화 등으로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서 신체의 외형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의복에 대한 만족과 구매욕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신체를 파악하고 있는가의 개인이 갖는 신체상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성복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신체만족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하여 선행연구하여 발표를 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자신이 인지하는 신체형과 만족도, 그리고 인지하는 신체의 이상형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Secord와 Jourard(1953)에 의해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이래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체만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Carron & Witzel(1975)은 객관적인 체형과 성격태도와는 서로 유의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자신감은 체형과 신체에 대한 만족, 신체에 대한 고민 등의 요인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Secord & Jourard, 1955; Sugarman, 1964; Tucker, 1982)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수록 자신감이나 자기존중감이 증가하여 신체만족도가 자신감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Tucker, L. A., 1982; Robinson, 1967; Wells & Marvell, 1976) 대체적으로 신체만족도는 성, 연령,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Cash, Winstead, & Janda(1986)에 의하면 미국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34%가 여성은 38%정도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불만족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스스로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Desmond, Price, Halliman, and Smith(1989)는 흑인과 백인여성의 자기 체형에 대한 인지를 조사했는데 흑인여성이 백인여성에 비해 실제체중보다 더 작게 인지하여 날씬하다라고 인지하지만 백인여성은 실제의 체중보다 무겁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Manley(1993)는 미국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이 떨어

진다고 하였으나 한국여성은 20대의 여성이 30대 이상의 주부에 비해 가늘고 긴 체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박우미, 1993; 구양숙·추태귀, 1996; 植竹桃子, 1998)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젊은 층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상징적 상호이론은 대체적으로 외모가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O'Connel, 1998) 외모의 인지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체만족과 외모, 의복만족도에 대한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으로서 신체만족과 의복행동의 관련 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으로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의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의복이 사회적 의미 전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Ericken, M. K., & Sirgy, M. J., 1989) 의복과 신체만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Hwang & Noton은 5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의행동의 여러 요인과 신체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신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기성복에 대한 만족이 높고 쇼핑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의복에 대한 소비도 높다고 하였다. Rook(1985)은 소비자 구매행동과 신체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매행동이 높아, 신체만족도와 상품구매행동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Turnbladh(1989)는 기성복 바지는 맞춤새에 대한 주관적평가를 연구하였는데 피험자들이 자기에게 적당한 여유분과 맞춤새가 좋다고 평가되면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으로 바지를 착용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Shim, Kotsiopoulos, and Knoll(1991)은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보다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신체만족도와 창의행동, 선호스타일과의 관계연구를 보면 박과 남(1999)은 착용여부를 결정할 때 상반신은 신체의식과는 관련이 적어 유행이나 선호취향에 의해 결정되나 하반신은 신체크기에 대한 인

식이 창의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9)에 의하면 신체만족도와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이 관계가 있는데 신체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드러내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위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설문항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항목, 신체치수기록(신장·체중) 2항목,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조사하는 24항목(5점 척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예, 아니오)의 30항목, 상·하반신 전신에 대한 만족도 4항목(5점척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 24항목(5점척도), 의복선호스타일 26항목, 의복행동 6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식과 만족도에 관한 87항목만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주관적 비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치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본인의 신장과 체중을 기록하게 하였고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여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였고 전신·상반신·하반신·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하는 자신의 신체형과 이상형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대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는 전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로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영문 설문지는 미국대학의 의류전공자에 의해 번안되고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내용타당성을 확인 받았다. 측정도구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가 신체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0.5759, 본인이 인지하는 신체상에 대한 문항은 0.8026으로서 신뢰성이 인정되었다.

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임의표본추출법에 의해, 18세에서 27세에 해당하는 여대생으로 한국여대생의 242명과 미국여대생의 145명의 자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단 조사법으로 자

료수집이 되었는데 한국여성은 1997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광주와 서울의 대학에서 의류학 관련 교양 과목수업을 받고 있는 몇 개의 집단을 선택하여 수업시간 중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제출하게 하였고, 미국여성은 199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뉴욕주의 코넬대학교의 몇 개의 College of Human Ecology에서의 가족학 관련 교양과목 수업시간을 선택하여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여 다음 시간에 제출하게 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402부가 수집되었는데 그 중에 통계분석이 불가능한 15부를 제외한 387부가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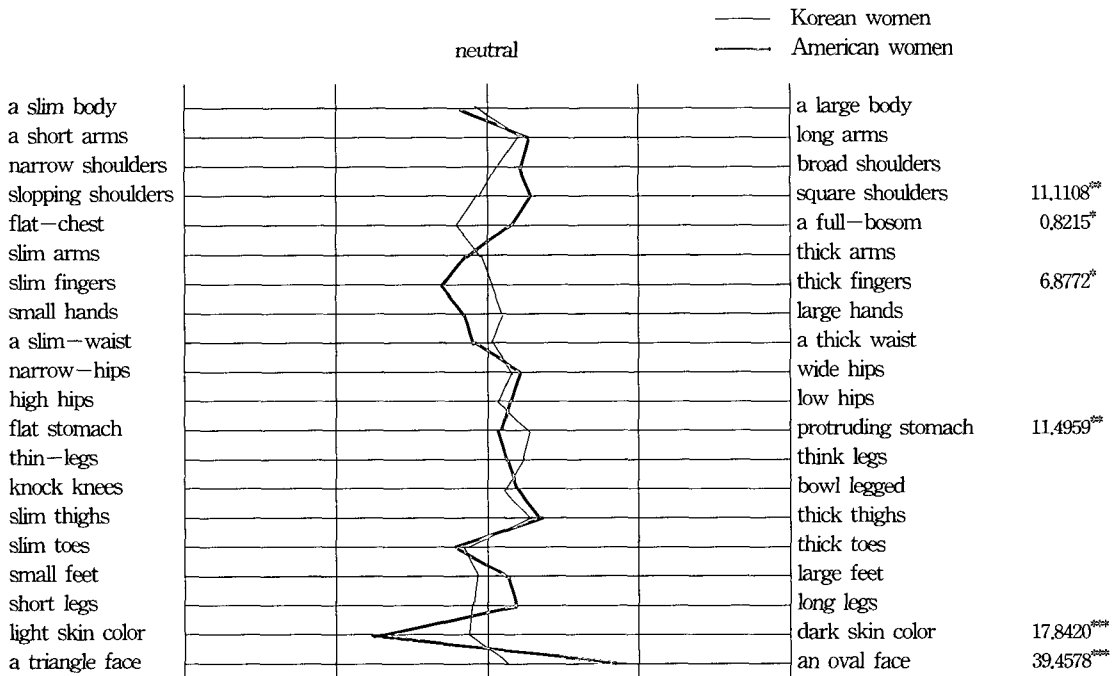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 이상체형에 대한 평균과 편차를 구하고, 그리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신체크기별 집단화하기 위해 신체충실지수로서 일반적인

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Rohrer Index를 구하여 $RJ < 1.2$ (최약형), $1.2 < RJ < 1.5$ (정상형), $RJ > 1.5$ (비만형)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충실지수와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와의 상호관련성은 χ^2 값을 구해 분석하였고 신체충실지수와 신체만족도와의 상관관계의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신체 각 부위의 형태에 대한 의식

Fig. 1은 한국과 미국 여대생 두 집단의 신체의 형태에 대한 의식과 집단간의 유의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총 24항목 중에서 6항목이 두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여성이 미국여성에 비해 가슴이 밋밋하고($p < 0.01$) 어깨가 쳐져 있으며($p < 0.05$) 손가락이 굵고($p < 0.05$) 피부색이 더 검고($p < 0.001$) 아래배가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p < 0.01$) 미국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얼굴형이 계란형($p < 0.001$)이라고 자기



* $p < 0.05$, ** $p < 0.01$, *** $p < 0.001$

Fig. 1. The profile of perceived body type for Korean and American women

체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여대생과 주부집단간에는 허리나 넓적다리의 크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박우미, 1993) 한국과 미국여성의 두 집단간에 가슴과 배 부위가 맛맛하다는 형태의 의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문화권이 다른 두 나라간에는 크기에 대한 인식보다는 형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Fig. 1의 선의 형태가 거의 직선형으로서, 한국과 미국여성 모두, 자기의 신체형에 대한 의식은 극단적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Table 1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와 두 집단간의 유의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항목에서 50%이상의 불만족을 나타낸 항목은 한국여성의 경우, 나의 손이 크다(50.0%), 엉덩이가 쳐져 있다(52.9%), 나의 다리가 굵다(53.7%), 나의 넓적다리가 굵다(63.6%)의 4 항목이고 미국여성은 나의 넓적다리가 굵다(64.8%)의 1개의 항목에 불과하였다. 한국 여성은 굵은 넓적다리나 쳐진 엉덩이 그리고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여성은 단지 넓적다리가 굵다라는 것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한국 주부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넓적다리가 굵은것에 불만족하지만 이보다 "허리가 굵다"에 58%로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박우미, 1993) 이는 젊은 여성들이 주부보다 다리가 굵은것에 대한 불만이 크고 이에 대한 불만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Table 1의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30항목 중에서 20항목이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두 집단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한국여성의 체형이 미국여성에 비해 신체 부위 중에서 어깨, 손, 팔, 엉덩이, 얼굴형, 피부색 등에 대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여성은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엉덩이가 쳐져 있다", "얼굴이 크다", "목이 두껍고 짧다"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미국여성과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

Table 1. Percent of respondents dissatisfied with body shape of Korean and American

body site	Percentage(N)		T-value
	Korean	American	
I am a large type	43.0(104)	29.0(42)	2.76**
I have slopping shoulders	18.6(49)	20.0(29)	-0.51
I have square shoulders	27.7(67)	33.1(48)	-0.15
I have a long torso	28.2(68)	25.5(37)	-1.73
My bust is large	29.3(71)	15.5(37)	-1.46
My bust is small	45.9(111)	42.8(62)	-1.63
My shoulder is broad	40.1(97)	31.0(45)	-2.55*
My shoulder is narrow	32.6(79)	22.1(32)	-3.74***
My hands are big	50.0(121)	24.8(36)	-6.12***
My hands are small	33.9(82)	29.0(42)	-2.64**
My waist is thick	29.3(71)	38.6(56)	1.50
My arms are thick	45.0(109)	31.7(46)	-3.21**
I have high hips	28.1(68)	18.6(27)	-2.80**
I have low hips	52.9(128)	26.9(39)	-5.57***
My legs are thick	31.0(75)	44.8(65)	1.33
My thighs are thick	53.7(130)	41.4(60)	-2.51*
My toes are thick	63.6(154)	64.8(94)	-0.24
My feet are big	23.1(56)	15.2(22)	-2.47*
My arms are thick	33.5(81)	9.7(14)	-0.35
My legs are short	36.4(88)	35.9(52)	-0.88
I have bowl-legged	16.9(41)	9.7(14)	-3.14**
I have knock knees	7.9(19)	8.3(12)	-2.42
My face is big	42.6(103)	20.7(30)	-5.11***
My face is small	35.1(85)	11.7(17)	-6.59***
My neck is thick	26.4(64)	10.3(15)	-4.65***
My neck is short	26.4(64)	12.4(18)	-4.27***
My color of skin seems to be dark	29.3(71)	41.5(21)	-3.87***
My face is round	44.6(108)	31.7(46)	-3.41**
My face is square shape	9.5(23)	6.9(10)	-2.40*
My face is triangle shape	6.6(16)	0.7(1)	-3.46***

*p<0.05, **p<0.001, ***p<0.001

나고 있다. "나는 몸집이 크다"라는 항목을 보면 한국여성은 43%가, 미국여성은 29%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여성이 대체로 체형이 작음에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여대생들이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과 발이 작아야 미인이라고 하는 문화적 관습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Table 2는 전신과 상반신, 하반신, 얼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과 두 집단간의 유의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면 한국과 미국여성의 만족도가 전신이 3.26 vs 2.41, 상반신이 3.32 vs 2.39, 하반신이 3.67 vs 3.03, 얼굴이 3.18 vs 2.17로서 대체로 한국여성이 미국여성에 비해 4부위 모두에서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의도 검증 결과를 보면 4부위 모두가 0.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두 집단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반신의 만족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하반신 중에서도 다리와 엉덩이 부위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두 나라간의 공통적인 현상이었고 선행연구의 결과와도(Labat Delong, 1993; 박우미, 1993; Harris, 1987; Fisher, 1973))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쁘게 보이고자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Cash, Winstead, and Janda, 1986) 미국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백인여성이 흑인여성보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흑인여성보다 백인여성이 추구하는 이상형의 범주가 극히 제한적이며 대중매체에 대한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arker S., et al, 199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한국여성의 본인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추구하는 미의 범주가 제한적이며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미래지향

적이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3.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신체만족도

두 집단의 신체치수를 보면 한국여성의 경우, 신장은 162.61cm±7.82, 체중은 50.72kg±5.62이고 미국여성은 164cm±11.49, 체중은 59.74kg±9.88이었다. 주관적 비만분류로서 Rohrer Index의 신체충실지수를 보면 한국여성은 쇠약형이 57.0%이고 정상형이 41.7%, 비만형이 1.2%이고, 미국여성은 쇠약형이 20.7%, 정상형이 62.8%, 비만형이 16.6%로 분포되어, 한국여성이 미국여성에 비해 쇠약형이 많고 비만형이 적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Table 3은 χ^2 값을 구하여 신체충실지수와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와 상호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며 유의적인 효과가 있는 항목만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한국여성의 경우, 신체충실지수와 상호관련이 있는 항목은 “나는 몸집이 크다.”(p<0.001), “나의 손이 크다.”(p<0.01), “나의 팔이 굵다.”(p<0.01), “나의 다리가 굵다.”(p<0.01), “나의 넓적다리가 굵다.”(p<0.01), “나의 다리가 짧다.”(p<0.05), “나의 목이 짧다.”(p<0.01), “나의 얼굴이 원형이다.”(p<0.01)로서 미국여성은 “나의 가슴이 크다.”(p<0.05), “나의 목이 굵다”(p<0.01), “나의 다리가 굵다”(p<0.01), “나의 팔이 굵다”(p<0.01), “나의 몸집이 크다”(p<0.01)로, 한국과 미국여성이 공통적으로 신체충실지수와 팔, 다리 목 부위와의 관련성이 높았고 “굵다”, “크다”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로 보면 대체로 비만형일수록 몸집이나 팔, 다리의 크기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과 미국여성과의 다른 점은 다리와 목의 길이에 대한 불만족으로서 한국여성은 다리와 목이 짧은 것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여성이 키가 작음으로 인해 슬림형의 이상형에 가깝게 보이고자하는 욕구충족이 안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여성은 비만형일수록 가슴이 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로 보면 대체로 가슴이 작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여성의 경우, 비정상적 비만형이 많아 이들이 가슴이 큰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Table 4는 신체충실지수와 신체만족도와의 상관

Table 2. Body cathexis mean scores at body site and T-test results

Area	Korean(M±SD)	American(M±SD)	t-value
Total body	3.26±1.05	2.41±1.17	54.1800***
Upper body	3.32±1.13	2.39±1.18	59.3511***
Lower body	3.67±1.18	3.03±1.29	25.4178***
Face	3.18±1.05	2.17±1.02	84.3865***

scale 1=highest, 5=lowest level of satisfaction

***p<0.001

Table 3. Chi-square Analysis and satisfaction with body by Rohrer Index

(Korean samples)					
Body site	group	%(N)	Body site	group	%(N)
I am a large type $\chi^2=32.1951^{***}$	1	27.5(38)	My hands are big $\chi^2=23.3465^{**}$	1	37.6(52)
	2	63.4(64)		2	65.3(66)
	3	66.7(2)		3	100(3)
My arm is thick $\chi^2=21.2524^{**}$	1	33.3(46)	My legs are thick $\chi^2=24.6062^{**}$	1	33.3(46)
	2	33.3(46)		2	71.3(72)
	3	66.7(2)		3	66.7(2)
My thighs are thick $\chi^2=18.4304^{**}$	1	52.2(72)	My legs are short $\chi^2=15.6503^*$	1	27.5(38)
	2	79.2(80)		2	48.5(49)
	3	66.7(2)		3	33.3(1)
My neck is short $\chi^2=22.8281^{**}$	1	15.9(22)	My face is round $\chi^2=19.7718^{**}$	1	34.1(47)
	2	40.6(41)		2	57.4(58)
	3	33.3(1)		3	100(3)

group 1=R.I.<1.2, N=138; group2=1.2>R.I.<1.5, N=101; GROUP3=1.5<R.I, N=3
*p<0.05, **p<0.01, ***p<0.001

(American samples)					
Body site	group	%(N)	Body site	group	%(N)
My bust is large $\chi^2=9.4053^*$	1	16.7(5)	My neck is thick $\chi^2=16.4211^{**}$	1	6.7(2)
	2	2.0(20)		2	5.5(5)
	3	50(12)		3	33.3(8)
My legs are thick $\chi^2=17.7866^{**}$	1	26.7(8)	My arms are thick $\chi^2=14.0527^{**}$	1	16.7(5)
	2	36.3(33)		2	28.6(65)
	3	79.2(19)		3	62.5(9)
I am a large type $\chi^2=18.6589^{***}$	1	10(3)			
	2	26.4(24)			
	3	16.7(15)			

group 1=R.I.<1.2, N=30; group2=1.2>R.I.<1.5, N=91; group3=1.5<R.I, N=2
*p<0.05, **p<0.01, ***p<0.001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여성은 얼굴을 제외한 신체충실지수와 전신(p<0.001), 상반신(p<0.01), 하반신(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여성은 전신을 제외한 신체충실지수와 신체만족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여성은 신체의 크기에 따라 신체만족도가 영향을 받지만 미국여성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본인의 신체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체의 의식구조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Table 4. Correlation of body cathexis at body site and Rohrer Index

Area	Korean	American
Total body	r=0.3450 ^{***}	r=0.2270 ^{**}
Upper body	r=0.1964 ^{**}	r=0.1181
Lower body	r=0.2091 ^{**}	r=0.1600
Face	r=0.02998	r=0.0116

***p<0.0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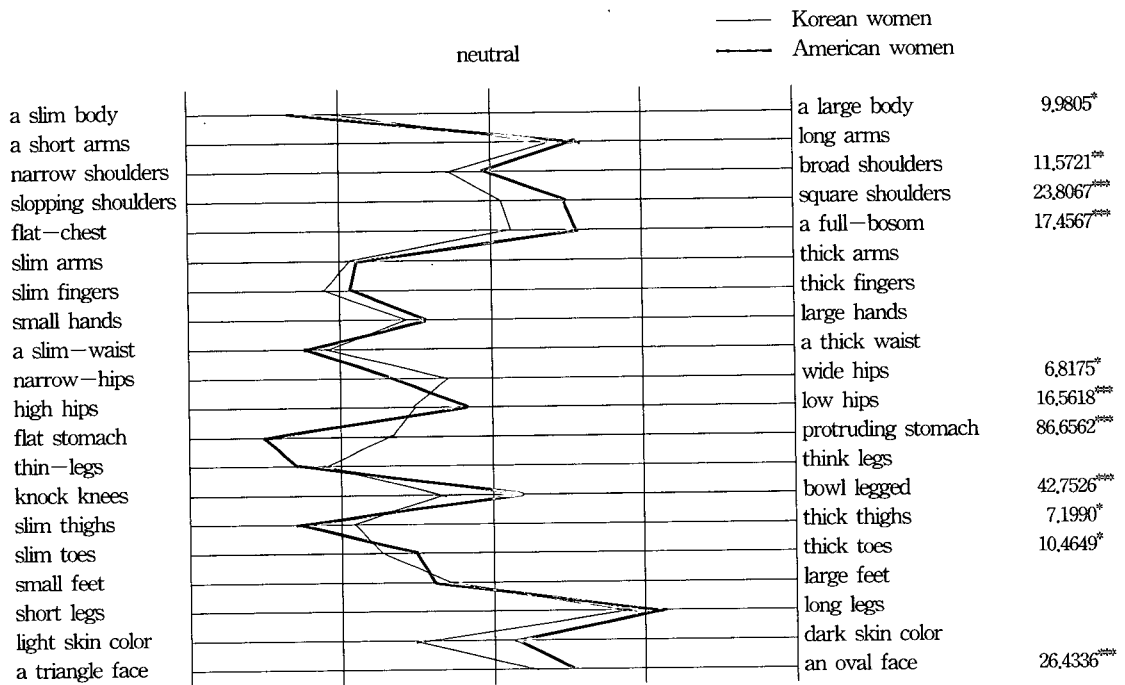
4. 인지하는 신체의 이상형

Fig. 2는 한국과 미국여성의 신체 각 부위의 형태에 대한 이상형의 프로파일과 유의도 검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여성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형이 슬림형으로서, 가늘고 긴 팔, 가느다란 허리와 손가락, 좁고 쳐지지 않은 엉덩이, 그리고 밋밋한 아랫배, 가느다란 넓적다리와 작은 발을 원하고 있었다. Fig. 2를 보면 24항목 중에 11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여성은 미국여성에 비해 좁고 쳐진 어깨와 솟은 엉덩이, 밋밋한 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양체형과 서양체형의 기본적인 차이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의 정도차이, 그리고 슬림형의 추구하는 이상형의 방향은 같지만 이상형의 크기나 형태에 대한 정도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Fig. 2의 프로파일의 형태를 보면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심한 지그재그형태를 이루고 있어 Fig. 1의 프로파일의 형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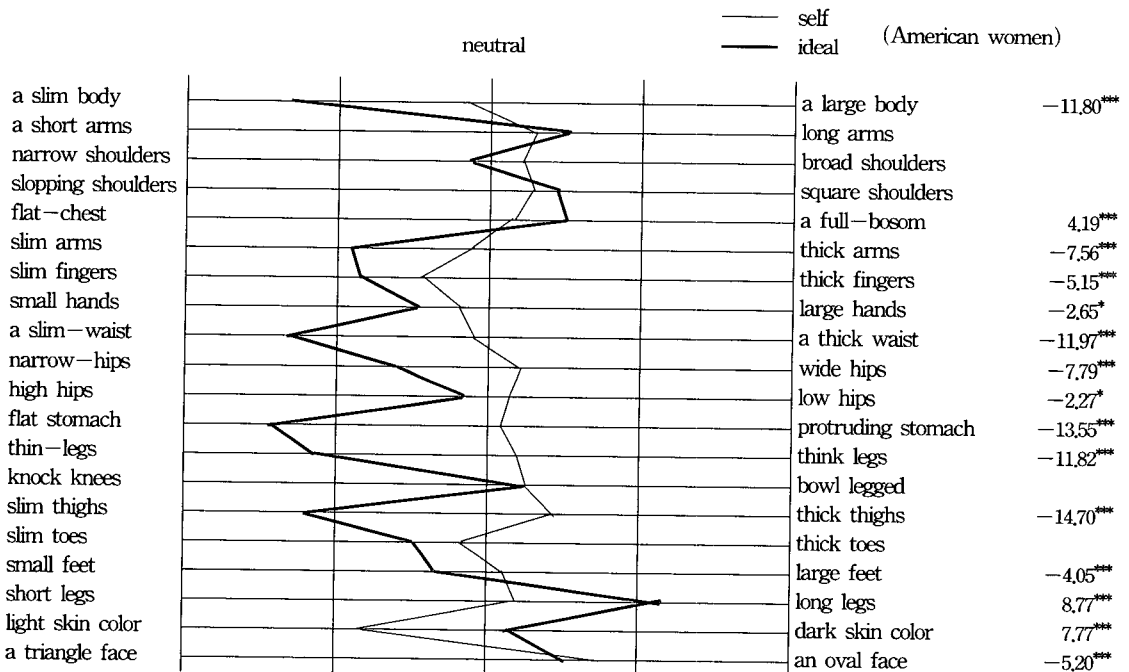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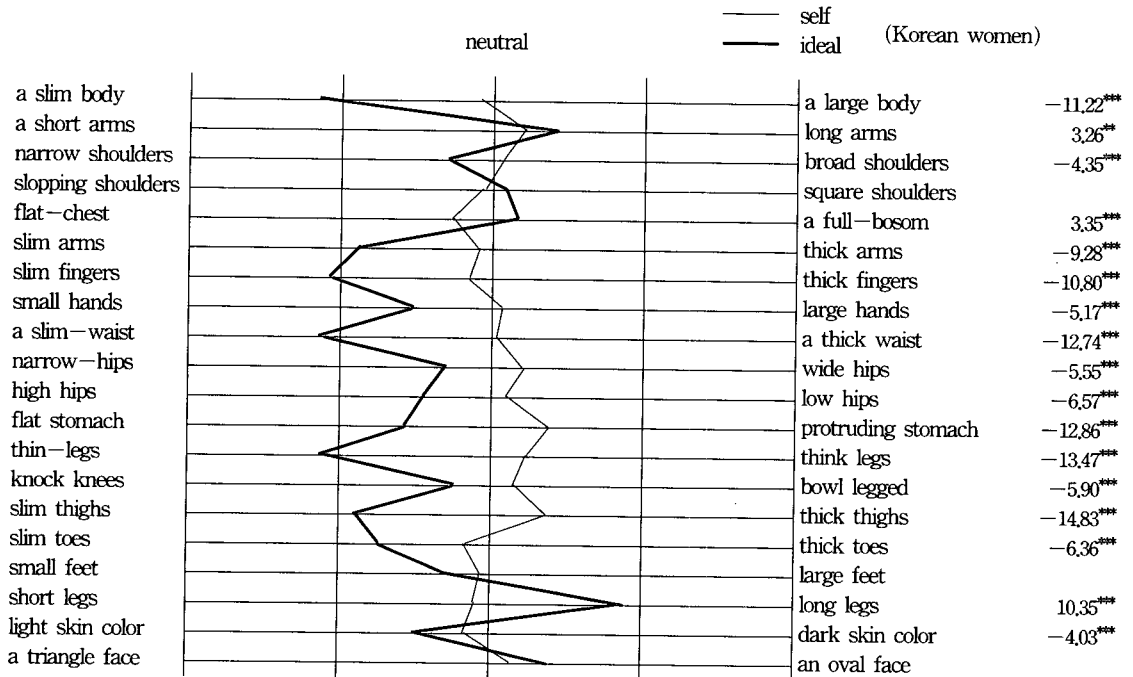
의 인지하는 신체형과 추구하는 이상형의 틈이 많이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지하는 본인의 체형과 추구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t-검증을 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높은 유의도 수준에서 인지하는 본인의 체형과 이상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 값이 모두 -값을 나타내는 것은 추구하는 이상형이 인지하는 실제의 체형보다 크기가 작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는 근래의 현대사회에서의 막대기처럼 가느다랗게 날씬한형을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의 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t-검증결과를 보면 풍만한 가슴과 긴 다리를 원하는 것은 두 나라간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과거에 비해 현대 여성은 가슴이 풍만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은 미국 여성에 비해 긴 팔을 이상형으로 추구하고 미국 여성은 현재보다 어두운 피부색을 원하고 있는 점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다리가, 특히 넓적다리가 굵은 것에



*p<0.05, **p<0.01, ***p<0.001

Fig. 2. The profile of perceived idea body shape for Korean and American women



*p<0.05, **p<0.01, ***p<0.001

Fig. 3. Discrepancies between their perceived body type and ideal body type

대한 불만은 두 나라간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한국 여성이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미국여대생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목, 다리가 짧고 얼굴이 큰 것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드러나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만족도가 낮은 부위는 체형을 드러내지 않고 결점을 보완해주는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류업체에서의 디자이너들은 다리를 늘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스커트나 바지의 폭과 길이의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그리고 한국여성들의 기능한 한 키를 커버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만족도가 기성복산업에서의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성복 산업의 국제화와 의류산업에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20대의 미국과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 그리고 신체의 이상형에 대해서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체 각 부위의 형태에 대한 의식은 총 24항목 중에서 6항목이 두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여성이 미국여성에 비해 가슴이 밋밋하고($p<0.01$) 어깨가 쳐져 있으며($p<0.05$) 손가락이 굵고($p<0.05$) 아래배가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p<0.01$) 피부색이 더 검고($p<0.001$) 미국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얼굴형이 계란형($p<0.001$)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2.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각 항목에서 50%이상의 불만을 나타낸 항목은 한국여성의 경우, 나의 손이 크다.(50.0%), 엉덩이가 쳐져 있다.(52.9%), 나의 다리가 굵다.(53.7%), 나의 넓적다리가 굵다.(63.6%)의 4 항목이고 미국여성은 나의 넓적다리가 굵다.(64.8%)의 1개의 항목에 불과하였다. 한국여성은 굵은 넓적다리와 쳐진 엉덩이 그리

고 손이 크다고 하는 것에 불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여성은 단지 넓적다리가 굵다라는 것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3. 신체만족도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 한국여성이 미국여성에 비해 신체 부위 중에서 어깨, 손, 팔, 엉덩이, 얼굴형, 피부색 등에 대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여성은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엉덩이가 쳐져 있다" "얼굴이 크다", "목이 두껍고 짧다"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미국여성과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하반신의 만족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낮았다.

4. 한국여성은 얼굴을 제외한 신체충실지수와 전신($p<0.001$), 상반신($p<0.01$), 하반신($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여성은 전신을 제외하고 신체충실지수와 신체만족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한국과 미국여성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형이 슬림형으로서, 가늘고 긴 팔, 가느다란 허리와 손가락, 좁고 쳐지지 않은 엉덩이, 그리고 밋밋한 아랫배, 가느다란 넓적다리와 작은 발을 원하고 있었다.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상형에 대한 프로파일은 심한 지그재그형태를, 인지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프로파일의 형태는 직선형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인의 인지하는 신체형과 추구하는 이상형의 틈이 많이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집단간에 24항목 중에 11항목에서 유의적인 수준에서 차이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여성의 자기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여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미국여성에 비해 낮았다. 신체에 대한 인식과 외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신감과의 밀접한 관계로 비추어 볼 때 한국여성이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복의 만족도가 높으면 신체만족도 또한 향상되어지기 때문에 기성복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체형에 대한 인지와 이상형의 추구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좋은 맞춤새와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구양숙·추태귀(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김정원·윤종희(1999), 나체상태와 외모관리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 127-136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우미(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25-36
- 박재경·남윤자(1999),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상관연구, 23(8), 1149-1160
- 정재은·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448-458
- 최유미·손희순(1997),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31, 119-130
-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 Ashidown, S. P. & Delong, M.(1995). Perception testing of apparel ease variation. *Applied Ergonomics*, 26(1), 47-54.
- Carron, A. V., & Witzel, H. D.(1975) Comparisons of personality for selected groups fifteen-year old 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0, 727-734.
- Cash, T. F., Winstead, B. M.,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 up. *Psychology Today*, 20(4), 30-37.
- Davis, L. L.(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1, 199-1205.
- Desmond, Sharon, J., Halliman, C., Smith, D. (1989). Black and whi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weight. *Journal of School Health*, 59, 353-358.
- Ericken, M. K., and Sirgy, M. J.(1989), *Achivement motivation and clothing behavior*, 4, 307-326
- Fisher, S.(1973), *Body consciou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rris, L. (1987), *Inside America*, NY: Vintage
- Horn, M. J., & Gruel, L. M.(1981). *The second skin(3rd)* Boston, MA:Houghton Mifflin.
- Hwang, J. and Norton, M.(1994) Body cathexis, self exteem, and clothing of men and women aged 55 years and older, ITAA Proceeding, 98
- Kaiser, S. B.(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Fairchild.
- Labat, K. L., and Delong, M. R.(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Littrel, M. A., Damhorst, M., L., & Littrel, J. M. (1990), Clothing interests, body satisfaction, and eating behavior of adolescent females: Related or independent dimensions? *Adolescence*, 25(97), 7-95.
- Look, D. W.(1985). Body cathexis and market segmentation, In M.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233-254, Lexington: Health/Lexington Books.
- Manley, J. W.(1993). The influence of aging on body cathexis of older women. proceedings, *International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50, 78.
- Parker, S., Nichiter, M., Vuckovic, N., Sims, C, & Ritenbaugh, C(1995). Body image and weight concerns among Afr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 females; Differences that make a difference, *Human Organization*, 54(2), 103-114.
- O'connell, E. K.(1998). Comparison of test protocols to assess the fit of mature women appar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 O Ya, M & Nakagawa, S.(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 of body and clothing behavior, *Japan Research Association Textile and End-use*, 30, 31-37.
- Secord, P., & Jourard, S.(1955). Body cathexis and

- the ideal female figur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0, 243–246.
- Shim, S. & Kotsiopoulos, A. & Knoll, D. S.(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3), 5–44.
- Shinn, D. C.(1986). Educ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ublic Opinion Quarterly*, 50(3), 360–370.
- Sugarman, A. A., and Haronian, F.(1964) Body type and sophistication of body
- Tucker, L. A.(198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totype and body cathexis of collage males. *Psychological Reports*, 50., 983–989.
- Wall, M., Dickey, L. E. & Talarzyk, W. W.(1978). Correlates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clothing performanc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2(1),104–115.
- Wells L. & Marwell, G(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lifornia:Sage Publications.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32, 380–394.
- 植竹桃子(1998),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瘠せの意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711–723